

2007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보고서

2008. 1.

박상규 교수(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)



재단
법인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
목 차

| | |
|--|----|
| I. 조사 개요 | 1 |
| ① 조사 목적 | 2 |
| ② 조사 설계 | 2 |
| ③ 조사 내용 | 3 |
| ④ 응답자 특성 | 4 |
| II. 조사 결과 요약 | 5 |
| III. 조사 결과 분석 | 22 |
|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| 23 |
| 1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| 23 |
| 2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| 25 |
| 3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 | 27 |
|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| 29 |
| 1.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| 29 |
| ③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| 31 |
| 1.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용정보 접촉 | 31 |
| 2.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구입 경험 | 33 |
| 3.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| 35 |
|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| 37 |
| 1. 10대 청소년의 마약류문제 노출 차단방안 | 37 |
| 2.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처음 받은 시점 | 39 |
| 3. 최근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| 41 |
| 4.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 | 43 |
| 5.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| 47 |
| 6. 마약류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| 49 |
|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| 51 |
| 1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| 51 |
| 2.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| 53 |
| ⑥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| 55 |
| 1.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| 55 |
| 2.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| 57 |
| 3.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자원봉사 참여의사 | 59 |

첨부 1. 조사설문지

Contents

| 조사개요

① 조사목적

② 조사설계

③ 조사내용

④ 응답자 특성

1. 조사 목적

- 본 조사는 10대 학교 청소년 2,39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추진

2. 조사 설계

| 세부 조사 설계 | |
|----------|---|
| ① 조사대상 | ● 전국 만 19세 이하 학교 청소년남녀 |
| ② 조사지역 | 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|
| ③ 조사방법 | ● 자기기입식조사(Self Entry) |
| ④ 표본추출 | ● 학제별 학년별 층화후 지역별 대상학교 무작위 추출 |
| ⑤ 응답자 선정 | ● 대상학교 학년별 표집 학생 무작위 추출 |
| ⑥ 유효표본 | ● 총 2,390명 |
| ⑦ 조사시점 | ● 2007년 12월 5일 - 12월 27일 |
| ⑧ 조사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, ● 박상규 교수(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) |

3. 조사 내용

| 평가 항목 | '07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○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 | ○ |
| ○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| ○ |
| ○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| ○ |
| ○ 마약류 사용 경험 | ○ |
| ○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 접촉 가능성 | ○ |
| ○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입 경험 | ○ |
| ○ 마약퇴치운동본부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| ○ |
| ○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방안 | ○ |
| ○ 약물예방교육(처음 시점, 최근 교육여부, 효과적인 교육종류) | ○ |
| ○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및 주장에 대한 의견 | ○ |
| ○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| ○ |
| ○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| ○ |
| ○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| ○ |
| ○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| ○ |
| ○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 | ○ |

4. 응답자 특성

| | | 사례수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 체 | | 2390 | 100.0 |
| 성 | 남자 | 1370 | 57.4 |
| | 여자 | 1018 | 42.6 |
| | 무응답 | 2 | .0 |
| 연령 | 9세-12세 | 766 | 32.1 |
| | 13세-15세 | 787 | 32.9 |
| | 16세-19세 | 811 | 33.9 |
| | 무응답 | 26 | 1.1 |
| 지역 | 서울 | 470 | 19.7 |
| | 부산/경남/울산 | 200 | 8.4 |
| | 대구/경북 | 341 | 14.2 |
| | 인천/경기/강원 | 631 | 26.4 |
| | 광주/전라 | 435 | 18.2 |
| | 대전/충청 | 313 | 13.1 |
| 도시규모 | 대도시 | 1312 | 54.9 |
| | 중소도시 | 1020 | 42.7 |
| | 군지역 | 58 | 2.4 |
| 학년 | 초등학생 | 752 | 31.5 |
| | 중학생 | 794 | 33.2 |
| | 인문계고 | 596 | 24.9 |
| | 전문계고 | 248 | 10.4 |
| 학급성적 | 매우 못함 | 117 | 4.9 |
| | 못하는 편 | 458 | 19.2 |
| | 보통 | 1034 | 43.3 |
| | 잘 하는 편 | 406 | 17.0 |
| | 매우 잘함 | 132 | 5.5 |
| | 무응답 | 243 | 10.2 |
| 현재 흡연 여부 | 전혀 아님 | 2197 | 92.0 |
| | 하루 1-5개비 | 105 | 4.4 |
| | 하루 6-10개비 | 20 | .8 |
| | 하루 11-19개비 | 26 | 1.1 |
| | 하루 한 갑 이상 | 28 | 1.2 |
| | 무응답 | 14 | .6 |
| 현재 음주 여부 | 전혀 아님 | 1976 | 82.7 |
| | 한 달 1-2회 | 339 | 14.2 |
| | 일주일 1-2회 | 39 | 1.6 |
| | 거의 매일 | 26 | 1.1 |
| | 무응답 | 10 | .4 |
| 현재 동거자 | 부모와 | 2166 | 90.6 |
| | 아버지하고만 | 46 | 1.9 |
| | 어머니하고만 | 71 | 3.0 |
| | 친척 등과 | 35 | 1.5 |
| | 쉽터 등 | 9 | .4 |
| | 기타 | 39 | 1.6 |
| | 무응답 | 24 | 1.0 |
| 가정 경제상태 | 어려움 | 215 | 9.0 |
| | 보통 | 1413 | 59.1 |
| | 부유함 | 522 | 21.9 |
| | 무응답 | 240 | 10.0 |

II 조사결과 요약

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

1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

가. 사회적 인식

-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교 청소년의 24.9%는 ‘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’고 평가한 반면, ‘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’는 평가는 7.2%인 것으로 조사됨.

|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| 2007년(%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| 24.9 |
|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| 40.7 |
|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| 27.3 |
|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| 7.2 |

나. 개인적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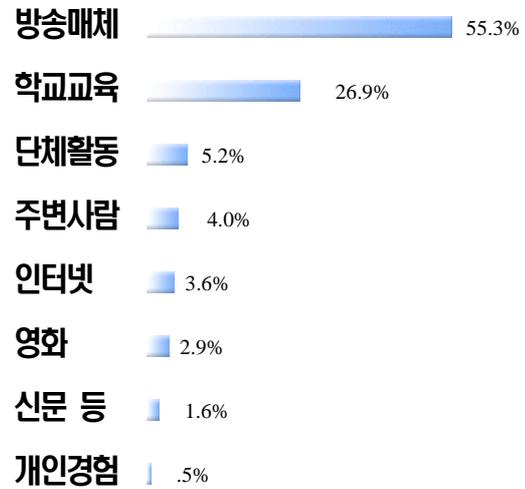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3명(29.1%)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‘매우 심각하다’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, ‘전혀 심각하지 않다’는 의견은 3.7%로 나타남.

|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| 2007년(%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매우 심각하다 | 29.1 |
| 다소 심각하다 | 45.5 |
| 별로 심각하지 않다 | 21.7 |
| 전혀 심각하지 않다 | 3.7 |

2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

□ 학교청소년 절반 정도(55.3%)는 ‘방송매체’를 통해, 그리고 4명 중 1명(26.9%)은 ‘학교교육’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특히 인천/경기/강원(32.9%), 광주/전라(32.6%), 9-12세(35.7%), 초등학생(36.1%), 현재 음주하지 않은 집단(27.7%)에서 상대적으로 ‘학교에서의 교육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

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

1.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

-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, ‘진통제’(18.1%)를 1순위로 응답. 그 다음으로 ‘신경안정제, 수면제’(4.9%), ‘살 빼는 약’(3.1%), ‘머리 좋아지는 약’(2.7%), ‘환각흡입물질’(2.4%), ‘각성제(잠 안 오는 약)’(2.3%), ‘근육을 키우는 약’(1.8%) 순으로 나타남.

|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률(%) | 2007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가. ‘진통제’ | 18.1 |
| 나. ‘신경안정제, 수면제’ | 4.9 |
| 다. ‘살 빼는 약’ | 3.1 |
| 라. ‘머리 좋아지는 약’ | 2.7 |
| 마. ‘환각흡입물질’ | 2.4 |
| 바. ‘각성제(잠 안 오는 약)’ | 2.3 |
| 사. ‘근육을 키우는 약’ | 1.8 |
| 아. ‘대마초’ | 0.4 |
| 자. ‘마약(히로뽕, 헤로인 등)’ | 0.3 |

- ‘진통제’ 사용경험은 여성(19.6%), 대전/충청(24.0%), 광주/전라(23.4%), 학급성적이 낮고,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,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집단과 현재 음주하는 집단에서 높았음.
- ‘살 빼는 약’ 사용경험은 여자(4.4%), 대전/충청(3.8%), 광주/전라(4.1%), 연령이 높을수록,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,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에서 높았음.
- ‘머리 좋아지는 약’ 사용경험은 남자(3.0%), 대전/충청(4.5%), 광주/전라(3.2%), 9-12세(4.1%), 학년이 낮을수록, 최근 예방교육 받지 않은 집단(3.1%),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(5.6%)과 부유한 집단(4.0%)에서,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높았음.
- ‘환각흡입물질’ 사용경험은 남자(2.9%), 대전/충청(6.7%), 초등학생(3.9%),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(4.2%), 현재 음주 집단과 현재 흡연 집단에서 높았음.

3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

1. 인터넷을 통한 유해약물 정보 접촉 가능성

-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약1명 정도(7.9%)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(담배, 술 포함)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| 인터넷을 통한 유해 약물 접촉 가능성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항상 접하는 편 | 1.6 | 7.9 |
| 접하는 편 | 6.3 | |
| 접한 적 거의 없음 | 16.8 | 91.4 |
| 접한 적 없음 | 74.6 | |
| 무응답 | 0.7 | 0.7 |

- 연령이 높아질수록, 학급성적이 나쁠수록, 현재 음주를 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‘인터넷을 통해’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용을 권하는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높았음.

2.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구입 경험

- 우리나라 10대 학교청소년들의 대부분(95.6%)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- 광주/전라(6.1%), 16-19세(5.0%), 전문계고(7.3%), 학급성적 낮음(5.0%),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할수록,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경험이 높게 나타남.

| 인터넷을 통한 유해 약물 구입 경험 | 2007년(%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있음 | 3.1 |
| 없음 | 95.6 |
| 무응답 | 1.3 |

3.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 인식도

-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9명 중 1명 정도(12.6%)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인터넷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며, 인식하고 있는 사람 10명에 9명 정도는 공모 등에 응모한 적이 있다고 함.

| 모니터링 프로그램 인식도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알고 있으며 응모 경험 | 1.4 | } → 12.6 |
| 알고 있으나 응모한 적 없음 | 11.2 | |
| 모른다 | 87.1 | 87.1 |
| 무응답 | 0.2 | 0.2 |

- 서울(2.6%), 초등학생(2.0%), 학급 성적 우수(2.8%), 가정경제 부유함(2.7%)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‘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’을 알고 응모한 경험이 있었음.

- 이에 반해, 광주/전라(13.6%), 13-15세(13.3%), 중학생(14.6%),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(13.7%), 가정경제 부유함(13.9%)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‘마약류 유통 모니터링’을 알기만 한 것으로 보임.

4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

1.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 방안

-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‘감시체제 운영’(26.7%)이나 ‘강력한 단속’(1.7%) 보다 ‘학교의 정규교과과정’(39.7%)과 ‘학부모 교육’을 강조함으로써,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함.
- 특히 ‘학교정규 교과정화’의 경우, 여자(46.4%), 부산/경남/울산(57.1%), 9-12세(48.5%),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(44.3%), 학년이 낮을수록, 현재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과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| 응답 내용 | %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학교에서의 약물예방교육 정규교과 과정 | 39.7 |
| 인터넷을 통한 감시체제 운영 | 26.7 |
|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| 18.8 |
| 10대들 자율적으로 말끔 | 9.3 |
| 강력한 단속 | 1.7 |
| 기타(직접 폐해 인식, 전국적 TV방송 등) | 0.7 |
| 무응답 | 3.1 |

- 마약류 문제 노출대처방안 중 ‘학교 정규교과정화’ 및 ‘부모 교육의 무화’와 같이 예방교육을 통한 접근을 바라는 집단이 ‘인터넷 감시체제’나 ‘10대 자율에 맡김’과 같은 강제와 방임보다는 마약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개인적 인식도 비슷한 결과를 보임.

2. 약물남용 예방교육 여부

가. 처음 받은 시점

-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(87.2%)이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, ‘초등학교’(47.9%), ‘중학교’(35.6%) 순이었음.
-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,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, 점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의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.

| 응답내용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초등학교 | 47.9 | } → 87.2 |
| 중학교 | 35.6 | |
| 고등학교 | 3.7 | |
| 교육 받은 적 없음 | 12.6 | 12.6 |
| 무응답 | 0.2 | 0.2 |

나. 최근 교육 여부

-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6명(58.3%)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서울(63.7%), 인천/경기/강원(63.4%), 9-12세(72.4%), 초등학생(73.0%), 가정 경제 부유함(64.3%), 그리고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

| 응답내용 | 2007년(%) |
|------|----------|
| 있다 | 58.4 |
| 없다 | 41.3 |
| 무응답 | 0.4 |

다.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성

-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‘비디오 교육’(36.4%), ‘외부전문가 강의’(29.1%), ‘실험교육’(26.2%), ‘약물관련 상담’(21.3%), ‘선생님 훈화’(20.1%) 순으로 응답함.
- 특히 ‘비디오 교육’의 경우, 서울(49.0%),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(44.8%), 연령이 어릴수록, 학년이 낮을수록, 학급성적이 좋을수록,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| 예방교육 종류별 효과성 |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
| 비디오 교육 | 매우 도움 | 10.5 | 36.4 |
| | 도움 | 25.9 | |
| 외부전문가 강의 | 매우 도움 | 9.4 | 29.1 |
| | 도움 | 19.7 | |
| 실험교육(취 등) | 매우 도움 | 9.5 | 26.2 |
| | 도움 | 16.7 | |
| 약물관련 상담 | 매우 도움 | 5.5 | 21.3 |
| | 도움 | 15.8 | |
| 선생님 훈화 | 매우 도움 | 4.5 | 20.1 |
| | 도움 | 15.6 | |
| 캠페인활동 참여 | 매우 도움 | 5.4 | 18.7 |
| | 도움 | 13.3 | |
| 약물예방토론 | 매우 도움 | 3.6 | 16.8 |
| | 도움 | 13.2 | |
| 포스터 등 공모전 | 매우 도움 | 2.8 | 14.1 |
| | 도움 | 11.2 | |
| 약물예방글짓기 | 매우 도움 | 2.4 | 12.1 |
| | 도움 | 9.7 | |
| 기타 | 매우 도움 | 0.5 | 1.3 |
| | 도움 | 0.7 | |

3.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

-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9명(92.1%)이 친구들의 마약류 및 약물 사용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함.
- 9-12세(94.4%), 초등학생(94.5%), 학급성적 우수(95.7%),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(93.6%)에서 ‘친구의 유혹에도 거절하기 어렵지 않다’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, 아직 마약류 및 남용약물을 접하지 않은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, 이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봄

|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전혀 어렵지 않음 | 70.0 | } → 92.1 |
| 별로 어렵지 않음 | 22.1 | |
| 어려운 편임. | 5.6 | } → 7.7 |
| 매우 어려움 | 2.1 | |
| 무응답 | 0.3 | 0.3 |

4. 마약류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

-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(88.6%)이 “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이다”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연령이 낮을수록, 학년이 낮을수록, 학급성적이 좋을수록,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‘호기심으로 시험삼아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’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
|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전혀 동의하지 않음 | 57.7 | } → 88.6 |
| 별로 동의하지 않음 | 30.9 | |
| 대체로 동의. | 9.0 | } → 10.9 |
| 전적으로 동의 | 1.9 | |
| 무응답 | 0.5 | 0.5 |

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

1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

-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‘대중매체 광고’의 접촉도가 37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‘예방교육/ 캠페인’ 접촉도가 31.4%로 나타남.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된 통로가 ‘방송매체’(54.8%), ‘학교 교육’(26.6%)와 ‘민간단체 활동’(5.1%)라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.

|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| 접촉도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| 37.3 |
|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| 31.4 |
|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| 3.7 |
|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| 3.1 |
|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| 2.4 |

- ‘대중매체’의 경우, 인문계고(52.9%), 16-19세(46.1%), 대구/경북(40.5%), 학급성적 우수(43.5%)에서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,
- ‘교육/캠페인’의 경우, 광주/전라(34.5%), 초등학생(35.1%),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(39.4%),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,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, 특히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이 하는 집단보다 접촉도가 높았음.
- ‘홈페이지’의 경우, 광주/전라(5.7%), 초등학생(5.6%), 9-12세(5.4%)에서 접촉도가 높았으며, ‘예방 상담’의 경우, 광주/전라(6.0%), 가정경제 어려움(4.6%), 연령이 낮을수록, 학년이 낮을수록 접촉도가 높았음

2.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

- 10대 학교 청소년의 52.6%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‘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’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.
- 그 다음으로 ‘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’(22.5%), ‘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’(14.7%), ‘마약류 연구사업’(6.7%) 순으로 응답함.

| 응답 내용 | %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마약류 예방 홍보나 교육사업 | 52.6 |
|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| 22.5 |
|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 | 14.7 |
|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| 6.7 |
| 기타 | 0.2 |
| 무응답 | 3.3 |

-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‘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’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(58.7%), 광주/전라(57.7%),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.
- 반면, ‘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 사업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(16.7%), 대구/경북(18.4%), 연령이 많을수록, 학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.

6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

1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

-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‘초·중·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 배당’(36.7%)을 1순위로 꼽아,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.
- 다음으로 ‘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,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’(26.0%), ‘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’(22.3%), ‘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’(12.6%)의 순으로 확산 방지 방안을 제시함.

| 응답 내용 | %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초·중·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| 36.7 |
|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| 22.3 |
|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,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| 26.0 |
|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 | 12.6 |
| 기타 | 0.5 |
| 무응답 | 1.9 |

-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‘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연령이 낮을수록, 학년이 낮을수록, 광주/전라(43.3%), 학급성적이 낮을수록, 최근 예방 교육을 받은 집단(39.1%)에서 높게 나타남.
- 반면, ‘처벌 강화’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남성(27.7%), 인천/경기/강원(28.3%), 학년이 높을수록,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, 현재 음주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남(교육시간 배당’(각각 36.9, 34.5%)을 1순위로 제시함.

2.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

- 10대 학교 청소년 대다수(88.4%)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‘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’고 응답함.
 - ‘매우 필요하다’ : 37.8%
 - ‘대체로 필요하다’ : 50.6%

-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‘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’의 응답내용에 따른 ‘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’을 분석해 보면, ‘확산 방지 방안’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.

- 특히,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체감하는 집단일수록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.

3.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에 자원봉사 참여 의사

- 10대 학교 청소년의 4할 정도(41.7%)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‘민간단체의 활동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.

| 자원봉사자로 참여 의사 | 2007년(%)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매우 그렇다 | 7.2 |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width: 10px; height: 10px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width: 10px; height: 10px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5px;">}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-right: 5px;">▶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10px;">41.7</div> </div> |
| 그런 편이다 | 34.5 | |
| 그렇지 않은 편이다. | 36.3 |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width: 10px; height: 10px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width: 10px; height: 10px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5px;">}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-right: 5px;">▶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10px;">57.1</div> </div> |
| 전혀 그렇지 않다 | 20.8 | |
| 무응답 | 1.3 | 1.3 |

7 총 평

1.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

-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0대 학교 청소년의 4명 중 1명(24.9%)이 ‘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’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‘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’는 부정적 평가는 7.2%인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 10대 학교 청소년의 10명 중 3명(29.1%)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‘매우 심각하다’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학교청소년 절반 정도(55.3%)는 ‘방송매체’를 통해, 그리고 4명 중 1명(26.9%)은 ‘학교교육’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.



‘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’은 남자, 고학년일수록(중, 고등학교), 대구/경북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어, 이들의 특성에 맞는 예방이 필요함.

2.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

- 사용 경험이 있는 마약류 및 남용약물로는 ‘진통제’(18.1%)를 1순위로 응답. 그 다음으로 ‘신경안정제, 수면제’(4.9%), ‘살 빼는 약’(3.1%), ‘머리 중아지는 약’(2.7%), ‘환각흡입물질’(2.4%), ‘각성제(잠 안 오는 약)’(2.3%), ‘근육을 키우는 약’(1.8%) 순으로 나타남.



합법적인 약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고, 그들의 사용형태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약물들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함

3.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

-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약1명 정도(7.9%)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(담배, 술 포함)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 10대 학교청소년들의 대부분(95.6%)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들의 9명 중 1명 정도(12.6%)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인터넷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며, 인식하고 있는 사람 10명에 9명 정도는 공모 등에 응모한 적이 있다고 함.



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유통이 확산되고 점점 더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, 이에 대한 인식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

4.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

-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‘감시 체제 운영’(26.7%)이나 ‘강력한 단속’(1.7%) 보다 ‘학교의 정규교과과정’(39.7%)과 ‘학부모 교육’을 강조함으로써,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함.
-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(87.2%)이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, ‘초등학교’(47.9%), ‘중학교’(35.6%) 순이었음.
- 또한 10명 중 약6명(58.3%)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-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‘비디오 교육’(36.4%), ‘외부전문가 강의’(29.1%), ‘실험교육’(26.2%), ‘약물관련 상담’(21.3%), ‘선생님 훈화’(20.1%) 순으로 응답함.



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마약류 노출 차단을 선호하고 있고, 학교에서의 약물남용예방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,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교과과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

5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

- 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‘대중매체 광고’접촉도가 37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‘예방교육/ 캠페인’ 접촉도가 31.4%로 나타남.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된 통로가 ‘방송매체’(54.8%), ‘학교 교육’(26.6%)과 ‘민간단체 활동’(5.1%)이라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.
- 10대 학교 청소년의 52.6%는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‘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’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, 그 다음으로 ‘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’(22.5%), ‘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’(14.7%), ‘마약류 연구사업’(6.7%) 순으로 응답함.

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활동에 대한 접촉도가 높아 예방사업(교육 및 홍보)을 중심축으로 하고 치료재활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6.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

-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‘초·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’(36.7%)을 1순위로 꼽아,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.
- 10대 학교 청소년 대다수(88.4%)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‘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

다'고 응답함.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그러나 4할 정도(41.7%)만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'민간단체의 활동'에 자원봉사자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마약류 활동 참여에 대한 벽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노력이 필요함.



청소년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'처벌 강화'보다 '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'를 요구하고 있고,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를 찬성하고 있어,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마약류 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벽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